

제자: 한밤중 삼경(三更)에 연공하면 마가 뒤편 놓는 느낌이 있는데 한밤에는 연공할 수 없습니까?

사부: 당신이 진정하게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며 다른 것을 섞어서 연습하지 않았다면 보증하고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때 신(新)수련생은 다른 것을 섞어서 연마(練)하는데, 그러면 그가 대법(大法), 이 문을 수련한다고 할 수 없다. 법(法)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고 다만 동작만 연습한다면 진정한 수련이 아니다. 문제가 생겨 내 이름을 부른다 해도 당신을 책임지기 어렵다. 당신은 “사부님께서 왜 저를 책임지지 않습니까?”라고 할 것이다. 당신은 대법(大法)을 수련했는가? 당신은 나의 요구에 따라 수련했는가? 이 이치가 아닌가? 부처수련은 엄숙한 것이다.

제자: 태극권(太極拳)과法輪功(파룬궁)을 함께 연마 해도 됩니까?

사부: 안 된다. 태극, 형역(形易), 팔괘(八卦)류의 이런 권법은 그 속에 모두 기공이 있다. 하지만 다른 무술을 연마(練)하는 것은 상관없다. 무슨 장권(長拳), 홍권(洪拳), 남권(南拳), 소림(少林) 이런 것은 모두 상관없다. 그러나 이 태극권은 완전히 기공(氣功)이다.

많은 윤회환생을 했는지 아는가? 당신은 일찍이 얼마나 많은 부모, 형제, 아내, 자녀, 남편이 있었는가? 당신이 속인 중에서 환생할 때, 당신의 매 한 생(生)의 친인들을 당신은 모두 이렇게 그들을 그리워한 적이 있는데, 당신이 다 그리워할 수 있겠는가? 어느 것이 당신의 진정한 친인인가? 당신 생명을 만든 그곳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인이다. 그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오히려 여기에 미혹되어 이런 잠시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

여러분이 한 가정으로 오거나, 세간에 오거나 간에, 마치 여관에 투숙한 것처럼 하룻밤 잠깐 머물다 다음날이면 훌쩍이는데 내세(來世)에 누가 누구인지를 알겠는가. 당신 주위에 바로 당신이 이전에 다정했던 남편과 다른 친인들이 있는데 당신은 알아보는가? 그가 당신을 알아보는가? 내가 말한 것은 바로 법리이며,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그 어떤 일종의 마음이라도 당신을 잡아끈다면 당신은 다 수련할 수 없다. 그것이 다 단단하게 당신을 잡아당겨서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하지 못하게 하며 당신을 성불(成佛)하지 못하게 한다. 이 각도에 입각하여 말한다면 그는 당신을 마(魔)에 걸려들게 한 것이 아닌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 자신은 아

직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과거의 사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는 여전히 당신을 잡고 있으므로 당신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여기에서 당신이 알 수 있도록 이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당신이 설령 수련하지 않는 속인일지라도 속인 중에서 당신이 늘 과거의 사람을 위해 고통스러워한다면 당신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매우 짧다. 부처의 세계에서 보는 속인사회는 더욱 짧다. 두 부처가 대화하고 있을 때 당신이 태어난 것을 보고 뒤돌아 다시 몇 마디하고 나서 보니 당신은 이미 백년이 지나 땅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렇게 빠르다. 사람이 사람 여기의 시간장(時間場) 속에서 꽤 길다고 느낄 뿐이다.

제자: 때로는 일부 잡념이 있어 저도 좋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제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마(魔)가 아닙니까?

사부: 당신이 당신의 이 잡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되도록 배척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늘 자신이 사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루 종일 아주 바쁘는데, 그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

한 중생이 있고 수많은 부처, 보살과 나한이 있다.

제자: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면서 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습니까?

사부: 염불은 바로 수련이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바로 정토(淨土) 그 한 법문을 수련하는 것이다.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면서 당신이 또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그것은 섞어서 연마하는 것이다. 나도 기어코 당신에게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실로 내려놓지 못하겠으면 가서 아미타불을 염하도록 하라. 나는 이미 이치를 분명히 말했다. 말법시기에 이르러 종교 중에서는 원만에 이르기가 아주 어렵다. 어떤 사람은 대업왕생(帶業往生)을 말하는데 속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거의 다 수련했고 주요한 업력을 다 닦아버렸으며 자그마한 집착이 남아 천천히 제거할 수 있는 이때에 특수한 정황이 나타나는데 그때라야 대업왕생 할 수 있다. 당신이 몹시 더러운 신체를 갖고서 절대적으로 깨끗한 천상(天上)에 올라가고 부처의 세계로 올라간다면 당신을 어디에 배치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과 집착이 좀 있다 하여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일부러 당신에게 남겨놓은 것이다. 우리는 다른 한 가지 경향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본래 그리 정진해서 수련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아, 이것은 나에게 남겨준 것이구나. 그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임하고 집착을 담담히 내려놓지 않으며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또한 수련이 아니다.

제자: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부: 나는 당신들에게 속인 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요소를 남겨 주었다. 제자들 중에 일부 젊은 사람들은, 내가 희망하건대, 당신들은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해야 한다. 가령 장래 인류사회가 모두 와서 대법을 배우는데 다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인류사회는 곧 끝장나며 없어질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아울러 젊은 사람은 또 미래인들에게 후대를 남겨놓아야 하는 것으로, 당신들은 또 미래의 신인류(新人類)를 위해 수련 방식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자: 法輪世界(파룬쓰제)는 얼마나 큼니까?

사부: 法輪世界(파룬쓰제)는 굉장히 크다. (웃음) 무량

다. 어떤 사람은 반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어떤 사람, 그는 전부 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자신은 다 알고 있는가? 사람은 일생 중에서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생활하는 중에서 소위 경험을 많이 쌓는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사람의 사상관념을 형성한다.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이렇게 처리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느낀다. 오래고 오래되면 고정 관념이 이렇게 형성된다. 아주 많은 일을 당신이 잘 처리했다고 느끼지만, 당신 자신은 오히려 없어졌고 당신 자신은 이미 가서 잠을 자버렸다. 속인사회에서 생활하는 당신, 당신의 육신은 이런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에 주재(主宰) 당한다.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흐리멍덩하게 바로 이렇게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이런 관념들은 모두 당신이 상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당신이 상해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업을 갚을 수 없으며, 마땅히 얻지 말아야 할 이익을 얻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데, 그럼 당신은 끊임없이 업을 지을 것이다. 이런 업력 역시 살아있는 것이다. 후천적인 관념과 업력은 사람의 대뇌에서 사상 업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럼 당신이 수련할 때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련할 때, 그것으로 하여금 수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이 수련하고 당신이 수련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물론 나도 가만있지 않는다.

내가 당신에게 성불하라 하고 당신에게 수련하라고 한 만큼, 수련 중에서 당신은 당신의 후천적인 관념을 제거해야 하며, 당신을 대체한 사상업력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려 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되지 않으려고 한다. 마침 그것이 당신의 대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사상을 동요케 하고 당신의 사상으로 하여금 안정되지 않게 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법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법을 믿지 않게 하며, 당신에게 이것저것을 하게 하는데, 심지어 비자각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전에 수련하지 않을 때, 사람을 욕한 적이 있고 나쁜 일을 생각한 적이 있어 이런 업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좋다, 그럼 사상업은 모두 당신 사상에 반영된다. 사람을 욕하는 말이라거나, 당신에게 법을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나를 욕하게 한다. 나는 당신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죄는 아주 클 것이다. 나를 욕하는 것은 당신의 사상업이지만, 수련 중에서 당신이 그것을 배제해 버리지 않으면 바로 당신이 나를 욕하는 것이다. 그러

거하면 당신은 연마할 수 없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수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내부의 미시적인 데서부터 당신의 신체를 정화해 주는데, 외부 표면에는 그리 많은 큰 신통(大神通)이 표현되어 나오지 않는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당신 생명의 가장 미시적인 데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정화하며, 가장 표면에 이를 때까지 줄곧 정화되기를 기다리는데, 당신이 최후에 남은 조그마한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곧 월만에 이르게 된다. 제거되지 못한 표면적인 것은 최후 일보까지의 수련을 위해 일부러 당신에게 남겨놓은 것으로서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 중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만한 것을 없애버리면 당신은 정말로 속인 중에 있을 수 없으며 당신은 그 어떤 사람 일에 대해서도 다 흥취가 없는,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 일보에 이르렀을 때 고만한 것을 전부 제거해 버리게 된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 중에서 수련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 중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동시에 또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속인처럼 집착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게 한다. 당신들은 이런 한 갈래 길을 걸었으며 이처럼 수련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잠시 속인의 사상

니까?

사부: 수련생들은 모두 아주 괜찮다. 사실 자신의 부족을 인식할 수 있음이 바로 수련 중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방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제를 말해 주었다. 바로 당신이 와서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기만 하면 나는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어야 하고 사람 표면의 가장 큰 한 층의 분자를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정화해 주는데 당신의 사상부분을 포함한다. 그러나 나는 또 당신이 속인 중에서 생활할 수 있고 속인 중에서 수련을 유지할 일부분을 남겨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 마음이 다 없으면 인간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사람의 것이 없으면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단 일분도 있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는 집착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 현존하는 사람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사실 나는 다른 한 방면에서도 완전히 당신의 이러한 사상을 모두 떼어버릴 수 있고 좋지 못한 사상을 전부 떼어버리고 당신의 집착을 직접 떼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되며 이것은 수련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표면에서부터 당신을 정화해 주어 당신의 사상으로 하여금 일정한 청정(淸淨)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남겨서 수련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더 제

므로 당신이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배척하기만 하면 당신은 당신이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업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마(魔)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공동으로 그것을 제거하여 당신 자신을 찾아와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의식,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을 위해 살고 있다.

제자: 천상(天象)이란 무엇입니까? 얼마나 높은 층차의 수련자라야 천상의 암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부: 천상(天象)은 사람에 대해 무슨 암시가 없을 것이다. 현재 단지 영기(靈氣)를 얻은 그런 동물들만이 인류의 이 좋지 않은 시기에 사람을 통제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신(神)은 인류에게 하늘에 아주 큰 반(盤)을 만들어 돌게 했다. 그 위에 인류사회가 어느 시기에 어떤 상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다. 일정한 시기로 돌면 인류사회는 비자각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천상(天象)변화이다.

제자: ‘윤회(輪迴)’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사부: 윤회에도 표준이 있는가? 한 생명은 윤회 중에서

아마 금생에는 사람일 수 있고 다음 생에는 동물일 수 있으며 또한 식물로 전생(轉生)할 수도 있다. 아무튼 무엇으로든 다 전생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전생하는가는 사람의 업력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제자: 숙명통(宿命通)은 미래를 예지(預知)할 수 있습니까?

사부: 숙명통이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느냐고? 숙명통은 사람의 일생일세(一生一世) 혹은 몇 생 몇 세, 또 더욱 많은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며, 또한 당신의 장래가 어떠하리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자신의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숙명통이다.

제자: 부처와 보살은 과거를 얼마까지 알 수 있습니까? 미래는 얼마까지 알 수 있습니까?

사부: 누락이 없어야만 부처, 보살로 수련될 수 있는데, 누락이 없다면 무엇이든 다 알 수 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삼아 구하지 말아야 하며, 나도 이런 문제를 대답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늘 나에게, “부처님은 어떻게 생활합니까?”라고 묻는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사람

런 중 올라가는 것이 아주 빠르다는 것이다. 근기가 좋고 오성이 높아 많은 마음을 그는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에, 생명의 근본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단지 표면만이 홍진 세상에 오염되었는데, 표면적인 오염이 제거되자 그는 단번에 불법진리를 인식할 수 있었다. 본래부터도 속인의 것에 대해서는 그리 집착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방금 말한 한 가지 비교적 좋은 데 속한다.

또 한 가지 정황은 근기 역시 아주 좋아 수련 중에서 대법(大法)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직 이성적으로 완전히 수련에 대한 대법(大法)의 요구를 인식하지 못하여, 과거 수련방식 혹은 출가인의 영향을 받는 이런 정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원인이든지 모두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당신에게 속인 중에서 수련하라고 한 것은 대법(大法)의 수련방식이 결정한 것이다. 더군다나 대법(大法)은 수련자가 어디에서 수련하든지 모두 우수할 것을 요구하므로, 학생이라면 당신은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사회의 일원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잘 해야 하는 동시에 또 수련자여야 한다.

제자: 법을 공부하고 연공한 지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아직도 사상업이 있어 마음속으로 조급한데 어떻게 해야 합

한 가지 종교형식으로 만들었다. 종교라는 이것을 신과 부처는 승인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례를 받고 수계(受戒)했다고 해서 신과 부처가 곧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사람이 승인한 것이다. 또한 세례를 받고 수계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귀의했다고 해서 곧 불가의 사람인 것도 아니다. 부처는 사람이 발원(發願)할 때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는 동시에 당신이 진짜로 수련하는지를 본다. 부처는 형식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가 승인한 것이다.

불교 중의 친구에 대해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간주하고 대하라. 사람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면 그것을 믿게 되라. 왜냐하면 당신들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것인데 그들에게 설사 무슨 신앙이 있다 해도 진수(眞修)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속인 친구로 간주하면 그만이다.

제자: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한 후, 다른 학과를 보고 싶지 않고 한 마음으로 수련하려 합니다.

사부: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말해야 한다. 하나는 이 사람이 아마 오성이 대단히 높고 근기가 아주 좋아 법(法)을 얻자마자 그는 곧 이것이 무엇인지 의식하게 되었으며, 수

은 부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 당신이 부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면 당신이 부처로 수련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은 극락세계를 보았고, 法輪世界(파룬쓰제)를 보았으며 또 다른 세계를 보았는데, 이는 당신의 그 층차 중에서 당신에게 나타낸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의 진상을 완전히 보려면 부처의 표준에 도달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 마치 이 법(法)처럼, 당신이 이 층차에서 본 것은 이 한 층차의 법리이며, 당신이 다른 한 층차에서 본 것은 또한 다른 한 층차의 법리이다. 낮은 층차에서 높은 층차의 진상을 나타낼 수 없는데 이것은 우주의 이치이다.

제자: 장래에, 절해서 나온 가짜 부처의 말로는 어떠합니까?

사부: 그것들의 선악(善惡)을 보고 결정한다. 사회를 화란(禍亂)케 하고 우주를 화란케 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 버려야 한다. 물론 좋은 것은 출로를 주어 전생(轉生)하게 해야 하는데 모두 배치가 있다.

제자: 心性(썬썬)의 수련에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사부: 내가 당신에게 준 이 법(法)이 바로 가장 체계적인 것이며, 이것보다 더 체계적인 것은 없다. 당신은 『전법륜』

을 보도록 하라.

제자: “도살용 칼을 내려놓으면 당장 부처가 된다.”는 불교 중에서 말한 것인데 法輪功(파룬궁)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사부: 이 말은 석가모니가 한 것이 아니며 후세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말법시기에 와서 수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부처의 말이 아닌 것을 부처의 말로 간주하는데, 현대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부처의 이치가 아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칼만 버리면 나는 곧 부처인가,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좋은 사람도 수련해야 하는데 이런 이치가 아닌가?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아마 지금부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려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부처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제자: “신체가 크게 변할 수 있다”를 진일보로 해석하나요?

사부: 수련인의 사상, 신체의 용량, 체적이 모두 커진다. 때문에 어떤 때 당신들이 참장(站樁)을 할 때, 아주 높고 크게 변했음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이 죽는다면 그건 정말로 죽는 것이며 그가 곧 신체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나 여기서는 수련자가 최후에 이르러 완전히 조용해질 수 있을 때에도 자신이 연공하고 있음을 당신이 알며 또 약간의 의식(意識)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마저 다 모른다면 그럼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부처가 자신마저도 모르겠는가? 이런 것이 아니다.

제자: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면서 불교 친구와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은 오늘날 종교를 믿는 사람을 수련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겠다. 신과 부처는 아래의 종교형식과 종교 자체에 힘쓰는 사람에 대해 아예 승인하지 않고 오로지 진수(眞修)하는 사람만 승인할 뿐이며 종교는 후세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 해에 종교를 창립하지 않았으며 단체로 수련하는 형식을 창립했다. 그는 사람들이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 출가해서 산림 속이나 산굴 속에서 가부좌를 했다. 후세인들이 그것을 이런 종교적인 형식으로 만들었고 사회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라고 불렀다. 지금 사람들 역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란(一心不亂)하게 염해야 하는데 아미타불이라는 몇 글자가 모두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로 무엇이든 염하여 다 비워야 하며 무엇이든 다 없어야 한다. 이 경지에 도달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입정(入靜)이다. 과정 중에는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며 단번에 일심불란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다. 초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리 아이가 병이 있다, 누구누구가 나를 너무나도 업신여긴다, 나의 배우자는 어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아미타불을 염하고 있다. 집착이 한 무더기나 되는데 어떻게 조용해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수련함에 따라 속인 중에서 집착하는 것을 갈수록 담담하게 볼 때면 당신은 자연히 조용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조용할 수 없는 것이 수련과 제고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꼭 기억하라. 그러나 다른 법문에서 수련할 때 그들은 그것을 아주 중하게 본다. 왜냐하면 그는 副元神(푸웬션) 수련이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主元神(주웬션)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신(識神)은 죽고 元神(웬션)이 사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副元神(푸웬션)을 元神(웬션)으로 간주하며 대한다. 식신이란 바로 당신 자신이 아닌가, 당신의 식신

변했음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수련된 그 쪽의 신체(身體)는 크게 변할 수도, 작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련인의 신체는 확실히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층에서 당신은 우주진상에 대한 인식을 감당해 낼 수 없다. 수련 중의 신체는 한 공간이 한 공간에 비해 크다. 여기에 앉아 있는 나의 육신은 바로 당신들이 본 것처럼 이만큼 크지만, 나의 저쪽 신체는 하나가 하나에 비해 크고 하나가 하나에 비해 큰데, 크기로는 여기에 앉아 있는 천목이 가장 잘 열린 사람도 나의 이 발가락 아래밖에 보지 못하며 발가락 위의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것도 아직 가장 큰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무엇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며 사제지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자면 수련인의 신체는 확실히 체적이 커진다. 내 기억에 인도 요가에 그림 한 폭이 있는데 박가범(博伽梵)이 그의 제자에게 “당신이 보라, 일체 신(神)들은 모두 내 신체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그렸다. 그림 중의 모든 신들은 모두 그의 신체 속에 있었다. 수련이란, 목적이 바로 신(神)으로 수련 성취되는 것이다. 신(神)의 크기는 바로 층차의 크기이며 과위의 고저이다. 그리하여 신체(神體)로 하여금 과위 층차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다.

제자: 이번에 미국에 오셔서 한 차례 9일 학습반을 꾸리려 하십니까?

사부: 아니다. 원인은 이 법(法)을 이미 완전하게 모두 말했기 때문이다. 『전법륜』이 나온 후, 나는 더는 체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법륜』에 따라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강의할 때 원고가 없다. 나는 수련생의 부동한 정황에 따라 강의하며, 동일한 문제를 내가 부동한 각도에 서서 강의하기 때문에 매번 다 같지 않다. 그럼 내가 다시 학습반을 꾸려 체계적으로 강의한다면, 수련생들이 『전법륜』에 따라 수련하는 것을 교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동일한 문제에서 말할수록 더욱 높게 말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갈수록 수련생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박수) 강의를 하면 수련생들의 수련을 교란할 수 있다. 이 법(法)이 이미 인쇄되어 나왔기 때문에 더는 체계적으로 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법륜』에 따라 수련하기만 하면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수련 중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해답해 주는 것은 괜찮다.

제자: 세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부님께서서는 누가 수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해도 완전히 입정(入靜)하는 데 도달하자면 역시 아주 어렵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들은 속인 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속인 중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수련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면 또 마침 당신 자신이 속인 중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먹고, 자고, 입기 위해, 집의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오늘은 누가 아프고, 내일은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인간세상의 일은 무엇이든 다 당신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당신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하게 된다. 오로지 수련 중에서 속인의 마음이 집착하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보아야만 할 수 있다. 이는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으며 일을 잘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득실에 집착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오직 속인의 마음을 담담히 내려놓고 줄곧 아주 담담하게 내려놓으며 더는 집착하지 않는 이때라야만 사상이 자연히 청정(淸靜)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조용해지고자 하지만 종교에서도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을 염하기만 하면 조용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공방법이라 과정 중에서는 여전히 조용할 수가 없다.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어떻게 염하는가? 일심불

그러므로 그는 또 범무정법(法無定法)을 말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인식한 이치는 속인 중에서 이미 최고였다. 만약 아인슈타인 그에게 기회가 있어 더 연구해 내려갔다면, 만약 그가 더욱 높은 이치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럼 그도 자신의 이전 인식을 뒤집었을 것이다. 사실 그는 종교 중에 더욱 높은 인식이 있음을 이미 발견했다. 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종교를 믿고 종교로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그는 종교 중에서 말한 것이 진정한 이치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간 것이다. 왜 많은 과학자들이 최후에 종교를 믿게 되었는가? 과학에서 이처럼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 절대적인 실증과학의 관념에 따라 보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런 조예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린 정의 중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들만이 유명무실한 수호자(守護者)이다. 진정으로 조예가 있는 사람 그의 사상은 어떤 정의나 결론에 제한받지 않을 것인데, 그래야만 총명한 사람이다.

제자: 연공할 때에 사상이 조용해지지 않으면 『전법륜』을 외워도 됩니까?

사부: 된다. 절대적인 입정(入靜)에 도달하려면 초기에 연공하는 사람은 해내기 어렵다. 일정한 시간을 연마했다

사부: 수련은 높은 경지와 낮은 경지에서 사상인식이 같지 않으며 당신이 사람의 사상으로 상상한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이 수련과정 중에서 일정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범신이 나올 수 있는데, 무수한 범신이 나온다. 범신은 주체(主體)[주존(主尊)이라고도 함]를 도와 제자를 거느리고 제자를 보호하는 것을 완수하며 아주 많은 구체적인 일들을 한다. 범신은 바로 나의 지혜의 나타남이며, 이런 지혜는 또한 신(神)의 형상이 있는데, 명백히 말하자면 바로 나 본인이다. 그러므로 나의 범신은 나 본인의 온전한 형상, 온전한 사유를 갖고 있어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주체와 구별이 없다. 그러나 이 층차 아래에서는 누구도 이런 내재적 연계를 보아낼 수 없으며, 이 층차를 초월한 후에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사상의 형상이 있는 체현이기 때문이다.

제자: ‘구하고자 함이 없으면 스스로 얻게 되다(無所求而自得)’와 ‘그치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無所住而生其心)’는 어떠합니까?

사부: 대법(大法)수련 중에 불교 중의 경서를 해석하는 것은, 내 생각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 작은 데서 말하자면,

석가모니가 말한 것은 그의 그 한 문(門)의 것이고 여기는 나의 이 한 문의 것이다. 이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큰 데서 말하자면, 일체 법(法)은 모두 대법(大法)에서 내원했으며 또 당신이 알지 못하는 많고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불교 중의 명사, 개념들을 나는 종래로 해석하기가 싫다. 어떤 때는 말이 나온 김에 말한 것이고 예를 든 것인데 그것은 나의 법(法)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또 여러분에게 권고하겠다. 당신이 머릿속에 만약 종교 중의 것들을 가지고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고 있다면, 당신은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엄중하게 교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또 불교 중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수련할 수 없다. 불교 중에서도 불이법문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말법의 난법(亂法)시기이니 여러분은 주의해야 한다.

불이법문을 말하자면 사실 종교 중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그 뜻을 진정하게 알고 있는가? 종교 중에는 또 무엇이든 다 수련하는 사람이 있다. 화상은 선종(禪宗)을 수련하면서 또 밀종(密宗)도 수련하고 어떤 경서든 다 보는데, 정토(淨土)를 수련하면서 또 선종의 것도 말한다. 어느 한 문(門)의 것을 수련하면 어느 한 문의 것을 보아야 하는데,

을 말했는가? 마지막으로 또 자신은 일생 중에 어떠한 법(法)도 말한 적이 없다는 한 마디 말을 했는가? 왜냐하면 그가 개오할 적에 아직 여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그 역시 위로 수련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최후로 만년(晩年)에야 비로소 아주 높은 여래 층차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49년간 법을 전하는 중에 역시 끊임없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우주에 대한 그의 인식을 말했다. 그는 그가 이전에 말한 것은 최고의 이치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다시 제고해 올라갔을 때는 또 원래 말한 것에 비해 높아졌다. 더 말해도 역시 최후의 근본적 이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방금 말한 것이 또 맞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또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자신이 일생 동안 말한 법(法)이 모두 우주의 최고의 법(法)이 아니며 우주의 최고의 진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만년에 이르러 그는 자신이 일생 중에 어떠한 법(法)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또 부동한 층차의 법리는 비록 최고의 이치가 아니지만 그것 또한 부동한 층차의 생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치임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층에서는 이치이다. 부동한 층차의 이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근본적인 이치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러나 우주 중의 신(神)은 최후의 근본 법리를 볼 수 없다.

당신은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딘 것이다.

사람들이 현재의 인식을 벗어나면 과거의 인식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광속이 최고속도라고 말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동일한 층차 중에서 생명의 염력(念力)은 광속보다 빠르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이 한 층차를 벗어난 더욱 높은 층차는 시간이 부동하기 때문에 가장 느린 속도마저도 낮은 층차의 가장 빠른 속도보다 빠르다. 생명은 층차가 있는 것이다. 부동한 층차에는 또 부동한 시간과 공간 형식이 있으며, 일체 중생과 물질은 모두 부동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층차가 높을수록 그 속도는 더욱 빠르다. 다시 말해서 고층차의 가장 느린 것도 저층차의 사람이 인식하는 광속보다 훨씬 빠르다. 불타(佛陀)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보다 크며 더욱 높은 부처는 더욱 큰 것으로 인류가 인식하는 광속을 훨씬 벗어났다.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함은 바로 여러분에게 인류는 인류 이 한 층의 이치와 사람이 마땅히 인식해야 하는 물질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람의 인식에 불과하며 우주의 진리가 결코 아니므로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단지 이 한 층차 중의 인식에 불과하다. 석가모니는 왜 범무정법(法無定法)

그 경은 모두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 아니다. 『화엄경(華嚴經)』을 보고 수련 성취한 후에는 화엄세계(華嚴世界)로 가고, 아미타불경을 보았으면 극락세계(極樂世界)로 가는데, 후세의 사람들은 경서는 모두 석가모니의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당신이 쉬어서 수련하면 어느 부처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부처를 믿음에 모두 한 가지 생각이 있다. ‘모두 부처님인데 누구를 모신들 안 되겠는가? 모두 부처님의 책인데 누구의 것을 본들 안 되겠는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전법륜』을 보면 法輪世界(파륜쓰제)로 수련되어 갈 수 있고, 수련 중에서 法輪(파륜)을 얻는 등 이 한 문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얻는지 아는가? 종교의 경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것의 그 문을 수련하면 당신은 그 문의 것을 얻는다. 그러면 그 법문의 신(神)이 당신 신체에 그 문의 것을 넣어준다. 그럼 당신이 또 이 문의 책을 보면 이 문에서는 또 당신에게 이 문의 것을 넣어준다. 어느 문의 것도 다 가져온다면 당신의 신체는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세탁기의 부품을 하나 가져다 넣는다면, 내가 보기에 당신 이 텔레비전은 볼 수 없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수련은 매우 엄숙하고 복잡한 공(功)과 생명이 승화되는 연화(演化)방식으로 인류의 가장 정밀한 계기보다 더 정밀하다. 그러므로 수련의 것을 한데 섞어서는 안 되며 또 섞을 수도 없다. 사람이 일단 이렇게 하였다면, 부처는 당신이 이것도 수련하고 저것도 수련하는 것을 보고는 당신에게 그들의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것 역시 수련인의 心性(썸썸)문제이다. 여래 부처는 그 자신 수많은 세대(世)의 고달픈 수련을 거쳐 그 한 세트의 것들은 수련해 냈으며 그의 세계를 구성한 것이다. 그의 세계는 모두 그의 그런 수련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당신은 아직 사람인데, 그를 마음대로 고치려 하는가? 동시에 두 법문을 수련하는 것은 당신이 두 부처의 법(法)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동시에 세 법문을 수련한다면 당신은 세 부처의 법(法)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죄가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몰랐다고 말한다. 바로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부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또 당신에게 이 죄를 범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근본 원인이다.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이래야만 학식이 넓은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집착이다.

어느 문을 수련하면 바로 어느 문이다. 선종이면 바로 선종이고, 정토면 바로 정토이며, 화엄이면 바로 화엄이고, 천태(天臺)면 바로 천태이며, 밀종이라면 바로 밀종이다. 하

리해 냈는데, 이것은 당시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환경이나, 시간이나, 지점이나, 어떤 정황을 겨냥해 말한 것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대단히 크다. 내가 전한 법(法)은 불교가 아니다. 나는 화신을 말한 적이 없고 단지 법신을 말했을 뿐이다. 나는 현대인의 사유, 현대 인류의 문화를 결부하여 말한 것이다.

제자: 아인슈타인은 광속도가 일정하다고 말했는데, 각각의 공간에 적용됩니까?

사부: 아인슈타인이 인식한 이 이치는 인류 범위 내의 이치이다. 현재로서는 이 방면의 인식 역시 인류의 가장 높은 인식이다. 그러나 인류의 경지를 벗어나면, 당신은 아인슈타인이 인식한 것이 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부동(不同)한 층차에는 부동한 이치와 물질의 부동한 층차의 표현형식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위로 올라갈수록 진리와 가까워지며 위로 올라갈수록 옳다. 고층에서 뒤돌아보면, 아래의 인식은 모두 우주의 근본 이치가 아니거나 근본 이치에 접근하지 못했다. 과감하게 진리를 인식한 사람, 그는 과감하게 앞 사람이 정한 법칙을 돌파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가 정한 법칙 안에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연구해도 모두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를 돌파한다면

의 음식물을 먹는다. 신(神)은 음식물을 먹지 않아도 그가 굶어 죽지는 않지만 굶주리거나 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도 음식물을 먹어야 하지만 표면의 물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물체를 먹는다. 향을 피우는 것 또한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지금 당신이 승려에게 “왜 향을 피워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부처를 공경한다고 말한다. 부처를 공경하는데 왜 향을 피우는가? 다른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가? 사실 향을 태워 나오는 연기도 물질이 아닌가. 그러나 연기를 구성하는 물질도 단지 표면 물질뿐만이 아니며 연기 역시 다른 물질체가 있는데, 신과 부처는 이런 것들을 연화(演化)해 제자를 가지(加持)하는데 쓴다.

제자: 법신과 화신(化身)이란?

사부: 나는 화신(化身)을 말한 적이 없다. 석가모니 부처는 많은 것들을 모두 매우 맞게 말했다. 하지만 불교 중에서 말하는 것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의 원래 말, 원래 뜻이 아니다. 불교의 경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을 떠난 오백년 이후에야 정리되어 나왔다. 오백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 지금부터 오백년 전에는 이 미국이 없었다. 오백년 전에 누가 말한 것을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이 그것을 정

지만 밀종에서도 난잡하게 수련할 수 없는 것으로, 홍교(紅敎)면 바로 홍교이고, 백교(白敎)면 바로 백교이다. 이것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 수련 그것은 가장 엄숙하고 가장 엄숙한 일로서, 인류에게는 이것보다 더 엄숙한 일이 없다. 그것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엄숙하게 대해야 한다. 물론 나는 당신에게 꼭 法輪功(파룬궁)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불교 중의 어느 문에서 원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서 배우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똑똑히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 또한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연이 있어 여기에 앉아 있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말법시기 종교는 출가인마저도 수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당신이 그런 출가인에게, “당신은 원만을 이룰 수 있는가?”하고 물어 보라. 나는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 세간의 출가인은, 전 세계를 포함하여, 世間法(쓰젠파)에서 일어나오고, 초과(初果) 나한 과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몇 사람뿐이다. 게다가 한쪽 발은 문 안에 있고 한쪽 발은 문 밖에 있는데, 이것 또한 副元神(푸웬션) 수련이다. 사실 그들 역시 모두 부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그에게 당신을 제도하라고 한다면 어디로 제도하겠는가? 그는 나한이기에 그는 또 수련하여 부처의 세계에 가려

고 한다. 어떤 부처가, 그를 받고 안 받고는 부처가 결정하는데, 그가 당신을 어디로 제도하겠는가?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고층차에 가서는 완전히 모두 자동적으로 연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부: 중국에 기공이 막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기공은 원만에 이를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때 전한 기공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 한 층차의 것에 속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한 마디 말을 했다. 사실 기공은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전하기 위해 길잡이를 한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만약 기공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대법(大法)을 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가장 엄한 사회에서 그를 전할 수 있었다. 장래에 역사상 그 어떤 사회에서 전하더라도 다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공이 유위법(有爲法)이라고 한다. 석가 모니는 유위법은 마치 몽환(夢幻)이나 물거품과 같아 원만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이 말을 한 사람 자신도 무엇이 유위(有爲)인지를 모른다. 그들은 연공하는 동작이 바로 유위(有爲)라고 말하지만 도가공(道家功)을 연마하는 많은 것들에 동작이 있으며, 수련되어 나온 대도

때문이다.

제자: 사부님의 법신을 어떻게 공양(供養)합니까?

사부: 법신은 바로 나이다.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염불하고, 절하고, 경을 읽는다. 매일 부처를 모시면서 의식도 아주 성대하게 하지만, 의식을 치르고 난 후에 사람들은 또 제멋대로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이미 부처에 대한 경앙(敬仰)이 무엇인지 모른다. 한 수련인이 수련 중에서 고생을 낙으로 삼으며 자신의 일체 집착을 제거해 버리고 자비향상(慈悲向上)하며 수련 중에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데, 이것은 당신이 어떤 의식을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법(法)을 전함에 사람에게 다른 어떤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당신에게 법(法)을 얻게 하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 속인 마음을 제거하여 최후에 당신을 제도하는 것이다.

물론 부처의 법신도 음식물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처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는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진짜로 알든 가짜로 알든 이 말은 그래도 맞는 말이다. 부처는 사람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그 경지 중

충망하게 『오천언(五千言)』을 써놓고 갔는지도 알고 있다. 정법을 전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만약 바르지 않은 것을 전하면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데, 화란(禍亂)이 끝나면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 휘멸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다.

제자: 고층차의 천마(天魔)는 어떻게 크고 작은 각자(覺者)를 인지(認知)하며, 누가 가서 이 한 무리의 마(魔)를 제약합니까?

사부: 신(神)은 더욱 높은 신(神)이 책임지고 있으며, 더욱 높고 더더욱 높은 것이 있다. 마(魔)는 우주 정부(正負)생명의 표현이며 고층차에서는 저층차의 인식과 같지 않다. 만약 나한 층차에 도달하면 어떤 사람의 사상도 없다. 사람은 백년 후에 자신의 육신체(肉身體)에서 나올 때, 사람이 일생 중에 한 일들, 세 살 때 한 일을 포함하여 마치 1분 전에 금방 한 것처럼 눈에 역력하다. 이 공간·시간을 떠나면 이 공간·시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일체는 마치 방금 한 것 같다. 그때 사람이 일생 중에 한 일의 옳고 그름을 자신이 모두 알게 되는데 그때서야 후회한다. 그때에 사람이 억제되었던 그 부분의 사상도 풀어진단다. 하지만 부처의 지혜와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부처는 더욱 큰 능력이 있기

(大道)는 상당히 높다. 선천대도(先天大道)는 일반적인 신과 부처보다 높은 많고도 많은 것을 수련해 냈는데 동작이 있다고 해서 곧 유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밀종(密宗)도 수인(手印)을 하고, 한인지역(漢地)의 승려도 부동한 수인(手印)을 하며 반가부좌, 결가부좌를 중시하는데 그것은 동작이 아닌가? 유위(有爲), 무위(無爲)를 또 동작이 많고 적음으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유위’는 이런 뜻이 아니다. ‘유위’란 사람이 수련 중에서 집착이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사람의 형식을 중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무슨 방법, 기능(技能), 법술(法術)들을 찾는데, 이렇게 하면 제고할 수 있다고 여긴다. 집착하는 마음을 닦아버리는 것을 근본으로 하지 않고 소술(小術)을 추구하고 유위적인 일을 한다. 어떤 출가인은 돈벌이를 하고, 사찰을 많이 짓는다든가, 사회를 위해 무슨 복리(福利)를 한다든가, 정치에 참여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위해 수련하는 것이야말로 몽환과 물거품이 아닌가. 자신의 수행을 잃었는데 원만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부처에게 사찰을 얼마 지어주고 뒷거래를 하면 당신은 나를 올려 보내주어야 한다.” 어디 이런 법이 있는가? 당신의 이 속인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는 당신을 신(神)의 경지에 가져다 놓아도 당신 스스로도 감

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신성(神聖)하고 장엄(莊嚴)하며 더 없이 순정(純淨)한 신과 부처와 비교하여, 당신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를 것이며 당신 스스로 당신이 마땅히 여기에 있지 말아야 함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상경지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내려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작은 유위가 아니며 사람의 집착이야말로 진정한 유위이다.

나는 수련 중의 사상활동은 모두 쉽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가급적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하고자 함이 없어야 한다. 그 어떤 물체라도 다른 공간에서는 모두 살아 있으며 생명이 있다. 당신은 연공 중에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수련의 기제(機制)를 강화하는데, 그 기(機)가 일정한 강도(強度)에 도달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운행한다. 장래에 연공할 때, 매번 모두 아홉 번씩 연마하여 그것을 강화하는데, 갈수록 강하게 함으로써 최후에 이르러 당신은 수를 셀 필요가 없이 당신이 연공만 하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홉 번째에 이르면 그것이 스스로法輪(파룬)을 밀어 돌리며, 아홉 번째에 이르면 그것이 스스로結印(제인) 한다. 수를 셀 필요도 없다.

제자: 자신이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났는지 사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두 좋은 일로 간주해야 한다. 또 확실히 좋은 일이다.

제자: 각자(覺者)는 대자재(大自在)합니다. 사부님께 서 대법(大法)을 전함에 수많은 수련생들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는데요, 대자재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자재(自在)를 말할 나위가 못된다. 나는 당신들을 대신해 죄를 감당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당신을 대신해 소업해 주고 있다. (박수) 그 해의 석가부처, 예수도 어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사부님, 당신께선 이렇게 큰 능력이 있으신데 왜 아직 번거로운 일이 있으십니까?”라고 말한다. 사실 번거로움은 모두 당신들의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수련생은 본래 그에게 소업해 주었으므로 조금 남은 번거로운 일은 마땅히 자신이 넘겨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넘지 못한다. 또 요만한 번거로움을 넘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망치게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때문에 내가 그를 대신해 감당했는데, 이렇게 하자 번거로운 일이 나를 교란하게 되었다.

사람을 제도하기란 매우 어렵고 매우 고생스럽다. 나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알고 있다. 나는 또 석가모니가 왜 부득이 열반했는지 알고 있으며, 나는 노자가 왜

지의 충격에 의해 머리가 흔들릴 수 있다. 사실 연공 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많아서 만 가지도 넘는다. 어떤 상태가 나타나든지 당신들은 모두 정확하게 대해야 한다. 수련의 길에는 곳곳마다 수련인의 오성(悟性)에 대한 고험(考驗)이 있다. 공(功) 중의 성분은 매우 많은데 사람 표면에 대해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전기(電)이다. 초기에 공(功)의 작용 하에 어디를 움직이기만 해도 당신은 느낌이 불편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좋은 것을 수련해 내도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어쩌서 불편하게 변했는지 의심한다. 만약 이렇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당신은 수련인이며 당신은 그것을 모두 좋은 현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 확실히 좋은 현상이다. 맥이 통할 때, 매우 괴롭고 국부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체의 변화 또한 불편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마치 많은 벌레들이 몸에서 기어 다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맥이 만 갈래도 넘기 때문에 단지이 몇 가닥의 맥뿐만 아니라, 중황으로 교차된 것이 모두 맥이다. 어떤 때는 온몸이 마치 전기가 통한 것 같고, 차갑고, 뜨겁고, 저리고, 무겁고, 돌아가는 등등의 상태가 너무나 많다. 감각상 모두 당신의 신체로 하여금 아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는 에너지와 신체 변화가 조성한 것이다. 감각을 말하자면 그야말로 너무나 많다.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부: 어떤 사람은 근기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가 선천(先天)에서 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그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준다면, 그의 길을 망가뜨려 그가 그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부동한 정황에 근거하여 정해야 한다. 어떤 때는 알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알 수도 있다.

제자: 장래에 전업수련제자들은 절에서 수련하면서 속인중으로 가서 행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장래’는 이번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이전의 것입니까?

사부: 출가인은 속인과 다르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수련하여 다른 대법제자(大法弟子)들과 마찬가지로 더욱 큰 과위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더욱 큰 위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제자: 법신의 보호가 있는지, 몸에法輪(파륜)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부: 그法輪(파륜)은 어떤 사람은 민감하여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지 않아 느끼지 못한다. 사람마다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法輪(파룬)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法輪(파룬)이 그의 신체 속에서 안정되면 역시 느끼기 어렵다. 마치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데 당신이 그것을 만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가? 그가 당신 신체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당신은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신체가 민감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 관계없다. 사람의 신체 정황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제자: 가령 한 젊은이가 수련원만을 이루어 곧 천국으로 가게 되면 그는 그의 부모와 자식에 대해 마지막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럼 곤란을 또 타인에게 남겨놓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바로 당신이 현재 원만을 이루지 못했고 당신이 그렇게 높은 사상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속인의 사상으로 이 문제를 본 것이다. 사람이 그 경지에 도달할 때면, 일체에 대한 인식이 다 같지 않을 것이다. 수련 중의 위덕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정황도 개변된다. 사실 사람은 각기 운명이 있어 누구도 누구의 운명을 좌우시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의 후손이 복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복을 남겨놓아도 그는 모두 깨끗이 탕진해 버리거나 혹은 불에 태워버리거나 혹은 잃거나 도둑맞을 것이다. 만약 그에게 복이 있다면 그는 계승할 수 있다. 사람은 각기 운명이 있는 만큼, 누구도 누구를 책임질 수 없다. 당신의 친인이라고만 보지 말라.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친인이지만 내세에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친인일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생에도 다른 사람의 친인이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기 운명이 있는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해도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배치한 것이 아니라, 신(神)이 배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그들에게 그 무슨 고통이고 고통이 아닌 것을 남겨놓는 문제를 담론할 바가 못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일찍이 배치가 있다. 이런 일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경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것은 모두 속인의 생각이다. 사실 수련 성취하여 신과 부처가 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위덕인가. 그 후의 일은 수련과정 중에서 배치하게 된다.

제자: 연공할 때 머리가 흔들립니다.

사부: 이는 모두 좋은 현상이다. 맥(脈)이 통할 때, 에너